



철학자와
도란도란

애니메이션



원하는 것을 가지면 행복하지 않을까?



안 돼. 전화기 바꾼 지
얼마 안 됐잖아.

새 휴대 전화를
갖고 싶어요.



너무 속상해.
부자라면 좋을 텐데.

우리가 물고

부자가 되고 싶어요.

부자는 원하는 것을 다 가질 수 있잖아요.
원하는 것을 가지면 행복하지 않을까요?



장자가 답한다 면



사람들은 대개 몸이 안락한 것, 맛이 좋은 것, 아름다운 옷, 아름다운 색깔, 아름다운 음악 등을 즐겁다고 생각합니다. 반면, 맛있는 음식을 먹지 못하는 것, 아름다운 옷을 입지 못하는 것, 아름다운 색깔을 보지 못하는 것, 아름다운 음악을 듣지 못하는 것 등을 괴롭다고 생각합니다. 그렇기에 부자가 되면 행복해질 것이라고 생각할지 모릅니다.

하지만 부유한 사람이라도 몸을 괴롭히면서 바쁘게 일하느라 많은 재산을 쌓아 놓고서도 다 쓰지 못하는데 이것이 몸을 위하는 것이라고 보기是很 어렵습니다. 세상 사람들이 즐기는 것을 보면 나는 그들이 즐기는 것이 진짜 즐거운 것인지 아니면 즐겁지 않은 것인지 잘 모르겠습니다. 행복해지려면 우리는 무엇을 바라고, 무엇을 버려야 할까요? 또 무엇을 좋아하고, 무엇을 싫어해야 할까요?

← 장자 (莊子, 기원전 365?~기원전 270?)

중국 전국 시대의 철학자

《장자》 저작.

